

단암전자통신(주) 대표이사

이기윤



"부품 하나하나에 일등 기술 자부심 심을 터"

1982년부터 줄곧 장비용 부품 생산에 매진한 단암전자통신(주). 엔지니어에게 조차 생소한 HIC 개발을 시작으로 이제는 부품업계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경기 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기윤 사장의 노력이 배어 있다. 단암의 일등 기술을 뒷받침할 이기윤 사장의 마인드를 살펴 보기로 한다.

단암전자통신(주)(이하 단암)은 82년에 설립되어 벌써 18년이나 같은 분야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개발과 연구실적이 있을 텐데 소개해 주신다면?

Hybrid IC 전문제조업체로써 82년도에 시작할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HIC는 전자통신엔지니어에

게 생소한 품명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단암은 HIC의 특징과 이용시 장점을 소개해 가면서 시장을 창출해 나갔고, 85년 국설전전자교환기인 TDX를 개발할 때 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개발에 참여하여 교환기 생산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체신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후 88년도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HIC제조기술을 활용한 DC/DC 컨버터(Converter)를 국내 최초로 개발 공급하였습니다. RF 부품분야로 VCXO, TCXO, PLL 등을 자체기술로 개발하고, 기지국장비용 고 출력 RF AMP를 개발하였으며, 지하음영지역 해소용 중계기도 개발하여, 무선통신 분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을 조기 예상하여 98년부터 ADSL 모뎀과 케이블 모뎀의 개발을 시작하여 올해부터 ADSL 모뎀을 삼성전자에 OEM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사정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IMF 같이 국내 경기가 어려웠을 때 사업을 운영하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A 물론 힘들었습니다. 단암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대부분 기간통신장비용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자 투자가 위축되어 주문이 줄어들고 환율은 치솟아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와 이익률이 현저히 낮아져 회사 자금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 임직원은 고통분담을 참아내었고, 회사의 경영주께서는 사채를 자금운영에 지원하여 주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매출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단암이 개발한 제품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다른 제품과 비교시 특·장점을 듣다면 어떤 것 이 있습니까?

A 앞서 일부 말한 바와 같이 단암에서는 HIC를 근간으로 한 부품분야와 DC/DC 컨버터, 정류기, 충전기 등 전력전자분야, LPA, HPA, 중계기 등 RF 분야, ADSL 모뎀, VDSL 모뎀, CABLE 모뎀 등 디지털 모뎀분야, 그리고 방위산업관련 SI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사업분야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부품에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연구원층이 두텁고 생산기술 축적으로 인한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편입니다.

이제 시장은 바야흐로 국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도 진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현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이미 HIC 분야로 미국 모토로라(Motorola)나 포드(FORD)사 등 대기업과 거래한 실적이 있고 중국 PTIC 등에 교환기용 가입자 B'd를 설계하여 수출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지멘스(SIEMENS) 사에 GFCI용 HIC에 이어 AFCI용 HIC 및 ROCKWELL AUTOMATION사로부터 HIC 수주를 받아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DC/DC 컨버터도 미국에 수출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RF AMP 수출도 올해 시작했습니다.

이미 97년부터 해외생산기지로 단암필리핀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지 주문과 수출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단암 USA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정통부가 지원하는 iPARK에 입주했습니다. 미국 명문공대 출신의 박사급 한인 인력들을 채용하고 국내 연구소의 연구원을 파견하여 미국 유수 연구소와 정보통신분야 선진 기술습득 및 공동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단암전자통신(주)가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이 있다면?

A 단암은 유무선 통신분야의 기간통신분야 장비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유선의 광통신분야에는 WDM장비의 개발과 광



송수신 모듈용 부품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며, 무선의 고주파대역 전송장비로는 ISM BAND의 주파수를 이용한 장비개발과 IMT-2000 시스템용 장비개발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내 통신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IMT-2000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A 단암에서 생산하는 모든 품목이 IMT-2000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품목으로 HIC, DC/DC 컨버터 등 부품분야와 고출력 RF AMP와 UP/DOWN 컨버터 등 SUB-SYSTEM 분야와 정류기, 중계기등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미 상당부분이 장비제조사와 공동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RF 부품분야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A 국내 RF분야는 국가의 특수환경으로 인해 그동안 매우 제한적인 시장상황이었고 그래서 기술축적도 매우 약한편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의 확산으로 인해 현재는 빠르게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선인터넷의 일상생활화와 함께 향후 위성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 단암에서도 RF분야에 연구원 양성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아직까지 부품 분야에서는 일본에 비해 기술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산화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부품 구매 조달시 업체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업체에서도 싸고 뛰어난 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가시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

A 정보통신분야의 기술 및 시장동향을 CTIA등 매일 서비스를 통해 주로 받아보고 있으며, 정통부홈페이지나 국내 협회들의 홈페이지도 국내 동향을 파악할 때 가끔 가보곤 합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며, 특별히 하고 계시는 운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A 주말이면 골프와 등산으로 피로해소와 운동을 겸해서 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30대부터 매년 즐겨오던 스키를 매주 말 빼지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 체조를 꼭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습관화된 운동이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고나면 상쾌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